

북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주민 호응

추석 민생 ‘집중기간’ 운영 성과
신청 4일만에 대상자 80.4% 지급
미신청자 개별안내… 지속 관리

광주 북구가 추석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시행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난 10일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4일만에 대상자 중 80.4%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북구는 명절 연휴 전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해 추석 민생 안정과 특수 효과를 내고자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지급 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현장 창구를 운영하는 등 수혜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전체 지급 대상자 가운데 80.4%의 주민들이 추석 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혜택을 받았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주 지급 현장은 추석 명절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요긴하게 사용하겠다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하는 등 이달까지 지급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북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주민은 지급기한 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을 수령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지급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소비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특급배송 런투유 강좌’ 인기 서구, 주민 역량개발·학습효과

광주 서구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 ‘특급배송 배달강좌’로 인기몰이 중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큰대)’을 운영 중인 서구는 올해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48시간 내에 강사를 매칭해 현장에서 파견하는 방식이다.

서구는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주민 500여명에게 55개의 배달강좌를 제공했다.

서예·우쿨렐레·하모니카·가족공예 등 문화예술을 비롯해 서양철학·글쓰기·시낭송 등 인문교양, 정리수납·타로상담 등 직업능력, 건강증진 관련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주민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장인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무실로 배달된 ‘요가·필라테스 강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신청한 ‘난타 강좌’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강좌로 꼽혔다.

서구는 배달강좌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강좌당 10회씩 강의를 제공해 역량개발과 학습효과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교육생 95%가 ‘런투유’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전 우수상 광산구, 운영기관 부문 선정

“아무 의지 없이 시작했는데, 도전해 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운영기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 단념 청년 구직의 욕향상 목적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국민적 관심 제고로 매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청년 △운영기관 △우수매니저 등 3개 분야로 16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광산구는 운영기관 부문에서 ‘작은점이 모여 선(line)이 되는 연결과 연계의 힘’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남구, 주말마다 페스티벌 풍성 음식 충분히 익히기 등 홍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을 비롯해 대촌천과 푸른길 공원 등 관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연달아 열린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일대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오는 21일 3개의 축제가 펼쳐진다.

먼저 ‘남구청년 동행 열차’가 21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지며, 청년 대학생 밴드 소울즈의 라이브와 댄스팀 공연,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배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연대회, 이성간 짝찾기 등 흥미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맛보는 소확행 나눔장터도 문을 연다. 개인간 직거래로 소중히 물품을 나눌 수 있으며, 3D 펜과 진주리본 키링 만들기 무료 체험을 비롯해 난타와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남구와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인들도 직거래 장터로 지역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순창에서는 특산물인 고춧가루를 포함한 제철 농산물을, 장흥과 나주 등 지역 상인들도 김부각과 표고버섯 가루, 식재 등을 대표 상품으로 내놓는다.

대촌에서는 밤하늘의 별뿔별 축제가 펼쳐진다. 21일에는 사전 접수 참가자 250명이 반딧불이를 만나며, 22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생태체험에 나서지 못한 광주시민을 위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잠시 개방한다.

9월 마지막 주말인 28일에는 봉선동 유안근린공원과 노대동 물빛 근린공원에서 책과 함께하는 북 페스티벌 및 에코 페스티벌이 주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이밖에 오는 10월5일에는 주월동 푸른길 공원 일원에서 제2회 남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축제가 열린다.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축제로,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찬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 10~12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학교공연을 진행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찾아가는 탄소중립 학교공연

미래세대 탄소중립 인식 제고

광주 서구는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생활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학교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찾아가는 공연형 환경교육으로 지난 10일 화정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11일 극락초등학교, 지난 12일 치평초등학교 등에서 55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연은 지구온난화로 집을 잃고 굶주림에 처한 북극곰 ‘고미’가 다시 북극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구 살리기 대작전을 펼치는 내용으로 기후위기라는 사회문제를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 뮤지컬 형태로 전달했다. 특히 지구온도 상승 요인을 함께 찾아보는 참여형 공연으로 몰입도를 높여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서구는 오는 11월까지 12개 초등학교

를 대상으로 공연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나문호 기후환경과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위해 관내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감탄서구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동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본격 시동

하반기 집수리 시범사업 시행

광주 동구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관내 노후화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해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거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지난해 집수리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주 동구 집수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해 집

수리 관련 정책과 주거 현황 등을 분석하고 동구 실정에 맞는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을 지정했다. 각 구역에 대해 물리, 인문·사회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거환경의 열악한 정도를 분석했다.

집수리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주거환경 평가 결과로 도출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2개 구역(친환경지원순환센터 및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동구는 시범사업 후 추진모형을 분석해 동구 관내 전체구역으로 집수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수리 지원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 주거지역의 주택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세밀하게 검토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수리 시범사업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기준으로 창호·단열·방수 등 성능 개선 집수리에 최대 1200만원(총 공사비의 90% 지원·10% 자부담)이다. 공사 범위, 신청 자격,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9~10월 중 집수리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